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상담사의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이 세 현 김 태 경†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상담 및 임상수사심리학과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효과요인과 관련 제도의 발전 방향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사 6명을 심층 면담한 후 녹취록을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2개의 세부 주제가 도출되었고, 이것은 5개의 본질적 주제로 수렴되었다. 변화 의지와 자기합리화가 교차하는 가해자의 태도에는 사회화 정도, 권력과 통제 중심의 세계관, 중독문제, 환경 탓, 동기 수준이 포함되었으며, 변화가능성을 믿는 상담실천에는 치료적 동맹, 손실-회피 전략 학습, 언어의 변화, 희망고취, 대물림 끊어내기가 포함되었다. 교정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상담자의 태도와 역량에는 인내심과 동반자적 자세, 저항 수용, 사명감 및 구원환상 버리기가 포함되었고 개인을 넘어선 관계적 맥락에는 가족 전체를 개입단위로 보는 것이 포함되었다. 실천 경험이 드러내는 제도적 긴장에는 수요자 중심의 입체적 개입, 상담 체계 및 내용의 질 개선, 변화된 가정폭력 발생 맥락을 고려한 제도 수정, 그리고 사법-치료 통합모델 정립이 포함되었다. 논의에서는 연구 결과의 함의와 제한점을 살펴보았다.

주요어 : 가정폭력,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교정상담사, 해석학적 현상학

\* 이 논문은 이세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김태경,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

E-mail: psych30@seowon.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주거 공간은 구성원에게 신체적·심리적 안전을 제공하고 인격 형성과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지는 기본적 생활 영역으로 기능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이러한 공간적 전제를 근본적으로 전도하여, 일상적 생활 공간을 지속적인 위협이 내재된 장소로 변화시킨다. 더욱이 가정폭력은 주로 외부의 감시로부터 차단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함으로써 은폐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관계나 공간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한 반복·지속될 위험이 크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를 전제로 형성된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대인 신뢰와 정체성 형성을 훼손하고, 그 영향은 피해자 개인을 넘어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제도화하였다. 동 법은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형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된 상해·치상, 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강제추행, 명예훼손·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제2조 제3호).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공적 개입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 억제로 구분될 수 있다(조현각, 장희숙, 2011). 이러한 이원적 접근은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주요한 입법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가정폭력을 일반 형사범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 처벌로 인한 가정 해체와 그에 따른 생계 문제 등 추가적인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해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보장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러한 우려를 배경으로, 가정이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전면적 개입을 일정 부분 유보하고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 중심의 대응을 통해 가정의 유지와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적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유지웅, 2017).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법률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임시 보호 시설 제공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구분된다. 폭력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부과되지만, 반대로 형사처벌보다는 가정의 유지 및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회부되어 보호처분 중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가정보호사건은 가해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처벌에 갈음하여 보호처분을 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보호처분의 내용으로는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

회봉사명령 또는 폭력 예방 등을 위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및 치료위탁 등이 있다. 다만 사안이 극히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반대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범행의 성질이 중대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거나 형사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이 내리는 사법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해당하나,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자체만으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보호처분은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제재로서의 상징성과 심리적 압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2020년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의 신설을 통해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예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실제로 실무 및 상담 현장에서는 보호처분이 즉각적인 형벌이나 신체 구속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가해자의 순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보호처분 제도의 집행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현미, 2023; 오승이, 2024; 윤영해, 2021).

이를 반영하듯 경찰청(2024)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2017년 38,583건에서 2023년 44,524건으로 증가하여, 장기간에 걸친 국가의 제도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피

해자 지원 건수가 같은 기간 181,290건에서 265,094건, 그리고 가해자 지원 건수가 78,646건에서 132,928건으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검거 건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라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본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특히 가해자 상담 위탁처분이 처벌보다는 교정·교화와 가정 복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물론 선행 연구들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상담이 가족관계 회복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폭력 행동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지님을 시사한다. 예컨대 장희숙(2005)은 보호처분을 받은 남성 가정폭력 가해자 50명을 대상으로 여성주의·인지행동 접근에 기반한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 신체적·심리적 폭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담 이후 가해자의 자존감과 성역할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폭력에 대한 허용도 역시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고를 통해서도 가해자의 신체적·심리적 폭력 수준이 현저히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강은희와 이현립(2008) 역시 가정폭력 가해자 대상 집단상담 효과성 검토 결과 폭력행동과 공격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최응용, 김의명과 오정영(2008)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현실치료와 인지행동 접근을 결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뒤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의사소통 능

력, 갈등해결 능력, 스트레스 대처 방식 전반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김원자(2010)는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40명을 대상으로 약 1년 3개월에 걸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부부갈등의 심각성과 폭력 신념, 폭력 사용 및 행동 빈도가 감소하는 한편 자아존중감과 부부 간 의사소통, 결혼생활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보다 최근에는 김현미(2023)가 성평등가족부에서 개발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이후 부부 갈등 관련 의사소통 영역에서 유의한 개선이 관찰되었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이 재범 억제를 위한 하나의 유효한 개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상담의 실질적인 효과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 일상으로 복귀한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이전과 달리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정·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추적·검증한 선행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최희순·한민경(2025)이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수행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27편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들이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개선 측면에서는 일정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기는 하나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의 맥락에서 관련 상담·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 중요하

기는 하나, 관련 제도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거나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관련 연구들은 기왕에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상담·치료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과 교정상담 과정에서 겪는 상담사의 어려움을 탐색하는 것에 경도되어 있다(김민정, 2022; 김정순, 2025).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탐색적 시도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사의 경험을 질적 분석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이 재범 억제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정상담 프로그램의 기계적 적용을 넘어, 치료적 동맹의 형성과 내담자의 욕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는 많은 상담 연구자들이 특정 기법 자체보다 상담사의 태도와 전문적 역량이 상담 효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Norcross & Lambert, 2018).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사가 가해자의 저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주관적·실천적 과정을 통해 치료적 개입의 통로를 형성해 나가는지를 체계화함으로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방 법

연구참여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사를 표적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연구설명 후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통해 교정상담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는 방식의 눈덩이 표집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경험 1년 이상을 선택 기준으로 정하였다. 최종 표집된 참여자는 00과 00 지역에서 활동하는 총6명의 여성 상담사였다. 참여자들의 교정상담 경력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이었으며 평균 11년이었다. 이 연구는 00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040820-202508-HR-009-02)을 받았다.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자료 분석은 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참여자의 경험에 내재된 의미 구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해석학적 현상학은 인간 경험이 삶의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전제에 기초하며, 경험의 의미가 부분과 전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Martin Heidegger의 존

재론적 현상학과 Hans-Georg 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연구자는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점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Heidegger, 1962; Gadamer, 2004). 본 연구에서는 Max van Manen (1990)이 제시한 해석학적 현상학 분석 방식을 참고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담전략

면담은 2025년 09월~12월 사이에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면담은 1:1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자의 근무지가 너무 먼 경우 실시간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면담에 앞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면담은 최소 60분에서 최대 180분이 소요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이야기 소재가 없어질 때까지 자유로이 이야기하도록 고개 끄덕임이나 공감반응을 통해 진술을 촉진하였고,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구체화 질문이나 확인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면담은 연구자가 자료분석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 내지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것에 대

표 1. 연구 참여자의 전공과 경력 관련 정보

참여자	전 공	학 력	전체 상담경력	교정상담 경력
A	심리학	석사졸업	10년 이상	3년 이상~5년 미만
B	심리학	석사졸업	3년 이상~5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C	상담학	박사수료	10년 이상	10년 이상
D	사회복지학	석사졸업	10년 이상	10년 이상
E	사회복지학	석사졸업	10년 이상	10년 이상
F	상담학	석사졸업	10년 이상	10년 이상

표 2. 사전 질문지 내용 요약

영역	질문내용
업무방식	1. 교정상담업무 방식과 업무량, 기관 내 업무 분장, 업무 만족도, 소진, 타 직군과의 협업방식 2.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사례
상담효과 요인	3. 개인상담 과정에서 관찰한 내담자의 변화요인, 변화과정 등 4. 집단상담 과정에서 관찰한 내담자의 변화요인, 변화과정 등 5. 효과적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요소
상담체계	6. 소속 기관의 교정상담 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향	7. 우리나라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상담 체계의 강점과 약점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

한 추가 탐색을 목적으로 전화통화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A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실시간 화상회의 형태로 1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참여자A의 경우 대면으로 1차 면담을 진행한 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화통화로 두 차례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 자료 분석

분석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감독자의 지도하에 2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면담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경험의 전반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현상을 잘 드러내는 핵심 진술과 표현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문장을 선별하는 선택적 읽기를 실시하였으며 문장과 문단 단위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는 세부적 읽기를 통해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이후 두 연구자가 서로 만나 각자의 의미 추출 결과를 밝히고 논의를 통해 의미단위를 결정하였으며, 이렇게 추출된 의미단위를 감독자와 연구자들이 함께 만나 최종 검토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이 함께 만나 의미 단위들

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비교·통합하여 세부 주제를 형성한 다음 자료 전체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경험의 본질적 주제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각 주제가 잘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였고 그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하여 세부 주제와 본질적 주제를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 분석의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Polit & Beck, 2010),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사의 경험을 단순한 사례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상담 실천이 이루어지는 관계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의미 구조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 결 과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통해 116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비교·통합하여 하위 주제 22개를 형성하였다. 이어서 자료 전체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경험의 5가지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주제와 본질적 주제는 표 3과 같다.

표 3. 세부 주제 및 본질적 주제 목록

세부 주제	본질적 주제
호의적인 태도의 이중성 권력과 통제 중심의 세계관 폭력 촉매제로 기능하는 중독문제 환경 탓,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회피 동기의 값어치	변화 의지와 자기합리화가 교차하는 가해자의 태도
치료적 동맹 공고화 손실 회피 전략 학습시키기 언어의 변화: 사고에서 범죄로 희망 고취 돕기 대물림을 끊어낼 용기와 책임감 강화하기	변화 가능성을 믿는 상담 실천
상담의 기본연료, 인내심 동반자적 자세,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항을 ‘방어’가 아닌 ‘메시지’로 수용하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만이 살길 훈장같은 사명감, 그러나 버려야할 구원환상	교정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상담사의 태도와 역량
환경을 살펴야 보이는 답 가족 전체가 개입 단위 현재 폭력의 암호를 푸는 해독제, 원가족	개인을 넘어선 관계적 맥락
수요자 중심의 입체적 개입 가정폭력 발생 맥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개입 체계 구축 사범-치료 통합 모델 정립이라는 상상 상담 체계 및 내용의 질 개선 : 전문화, 특화, 예산확보	실천 경험이 드러내는 제도적 긴장

**변화의 의지와 자기합리화가 교차하는 가해자의 태도**

**호의적 태도의 이중성**

참여자들이 경험한 가해자의 태도는 종종 협조와 회피가 공존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은 가해자일수록

상담 참여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러한 태도가 반드시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상담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언어와 행동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동기와 맥락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교정상담은 결국 가해자가 보여주는 ‘좋은 태도’를 표면적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태도 속에 담긴 두려움, 계산, 회피, 그리고 드물게는 실제 변화 욕구까지 분별해 내야 하는 해석적 실천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정말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하고 다른 재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보니 가정폭력이 죄로 판단돼 수감되면 다 날아가기 때문이지 자기 행동이 죄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참여자 E)

#### 권력과 통제 중심의 세계관

다수의 참여자가 가부장적 가치관을 강하게 내면화한 가해자일수록 관계를 상호작용이 아닌 지배와 통제의 구조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배우자는 동등한 관계의 상대방보다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며, 이로 인해 상담 관계 형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사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왜곡된 신념을 교정하는 문제를 넘어, 관계와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세계 이해를 다시 구성하는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성역할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이 뚜렷한 경우 아내를 통제해야 자신이 힘이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거 같아요. 그런 태도가 만연되어 있으면 라포형성 자체도 쉽지 않죠.”(참여자 C)

#### 폭력 촉매제로 기능하는 중독문제

모든 참여자가 알코올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 문제가 가정폭력 재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담사들은 이를 폭력의 단순한 원인으로 환원하기보다, 중독이 개인의 정서 조절 능력과 삶의 구조를 약화시키는 맥락적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중독은 폭력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 다시 활성화되는 통로를 열어놓는 삶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교정상담의 실효성이 개인의 의지나 통찰만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복합적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환경적·제도적 조건과 깊이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알코올 문제가 좀 많고 때로는 도박 문제 같은 거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중독 관리 통합센터나 정신건강센터 같은 곳하고 협업을 많이 해요. 중독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재발하니까요.”(참여자 B)

#### 환경 탓,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회피

대부분의 참여자가 가해자들이 종종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가족 경험을 폭력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장면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설명이 일정 부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동시에 책임 회피의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상담사들이 교정상담 과정에서 이해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해석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담하면서 ‘이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하는 행동이 범죄인 줄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상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는 거죠. 그럴 때면 저는 ‘우리가 드디어 통하기 시작했구나’하고 생각해요.”(참여자 B)

### 동기의 값어치

모든 참여자가 상담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가해자의 변화 동기를 강조하였다.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가해자가 외적 강제에 의해 상담에 참석하는 것과 스스로 달라질 필요를 어느 정도 자각하고 상담에 임하는 것 사이에는 상담의 깊이와 방향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변화 동기가 형성된 순간 상담은 단순한 절차 이행을 넘어 자기이해와 관계 변화의 공간이 될 수 있었고, 피해자의 반응을 통해서도 그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험은 교정상담이 법적 처분만으로 완결되는 개입이 아니라, 가해자가 자신의 삶과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내적 움직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됨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에게 동기는 상담의 한 요소가 아니라, 상담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중심축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할 동기 부여가 되고나면 느낌이 달라져요. 피해자를 통해서도 행동이 달라지는 게 확인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참여자 E)

변화 가능성을 여는 상담실천

### 치료적 동맹 공고화

모든 참여자가 교정상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치료적 동맹의 형성을 들었다. 가해자들은 대체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위협한 일로 여기며, 상담 초기에는 방어적 태도나 최소한의 협조만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가해자가 자기 경험과 폭력의 반복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 상담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상담기법의 효과라기보다, 비난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경계를 유지하는 상담사의 태도 속에서 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에게 치료적 동맹은 가해자가 자기 방어를 잠시 내려놓고 진짜 자신을 노출해도 즉각적으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감각을 형성하는 관계적 토대였다. 따라서 교정상담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기기만과 자기노출 사이를 건너게 하는 실천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다시는 안 하겠다던 사람이 라포가 형성되고 나면 ‘그걸 진짜 믿으셨어요? 제가 설마 한 번만 하고 여기 왔겠어요?’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도 어이가 없는지 웃기도 해요. 이렇게 자기를 노출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포가 형성돼야 해요.”(참여자 E)

### 손실회피 전략 학습시키기

참여자들은 가해자의 죄책감이나 도덕성에 직접 호소하는 것보다, 폭력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접근이 더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많은 가해자들이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이 잃게 될 관계, 직업, 경제적 안정, 사회적 평판 등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실무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담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가해자가 폭력의 결과를 자기 삶의 시간 축 속에서 다시 보게 만드는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손실 회피 전략은 가해자의 자기중심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기중심적 구조를 변화의 통로로 전환하는 실천적 지혜로 경험되고 있었다. 즉, 교정상담은 이상적 인간을 전제하고 그에 맞추게 하는 작업이 아니라, 현재의 가해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서부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폭력으로 인해 얻은 것과 잃은 것,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5년 후 너는 어떨지, 10년 후 너는 어떨지 이런 것들. 결과를 예상을 해서 자신에게 좀 더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요. 발달적 결핍이나 불편한 과거를 다루는 아픔보다 이런 작업이 더 효과적이에요.”(참여자 C)

#### 언어의 변화: 사고에서 범죄로

참여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폭력행위를 ‘사고’, ‘우발적 상황’, ‘부부싸움’ 등으로 표현하며 범죄성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언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을 자기 삶의 정당한 일부 혹은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방식과 맞물려 있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사고’가 아니라 ‘범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단

순한 용어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폭력에 대한 자기 해석이 바뀌는 사건이며, 타인의 인권과 경계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는 인식의 전환이었다. 참여자들에게 언어의 변화는 곧 존재 이해의 변화였고, 교정상담은 이처럼 가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어떤 말로 이해하고 서술하는지를 다시 구성해 가는 해석적 과정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사회가 범죄라고 규정하는 거지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 교육부터 시작해요. 집에서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니까요.”(참여자 A)

#### 희망 고취 돕기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스스로를 변화 불가능한 존재로 고정하지 않고, 자신 역시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이었다. 상담사들은 이를 위해 가해자를 단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만 규정하기보다, 여전히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존재를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가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관계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희망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가해자가 자기 삶을 다른 방향으로 다시 상상하게 만드는 실천적 자원이었다. 특히 상담사가 가해자의 변화 가능성을 먼저 믿고 그 믿음을 관계 안에서 유지할 때, 가해자

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정당화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이전과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교정상담에서 희망의 고취가 정서적 지지를 넘어, 가해자가 자기 존재를 폭력에서만 환원하지 않고 새로운 자기이해에 이르도록 돕는 해석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저는 ‘당신이 원래 살고 싶었던 삶은 뭔가요?’하고 자주 물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느끼게 할 수 있다면, 나도 보통의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믿게 하면 뭐가 되든 돼요. 그게 제가 경험한 거고, 제가 가진 믿음이에요.”(참여자 F)

#### 대물림을 끊어낼 용기와 책임감 강화하기

참여자들은 많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폭력행동을 원가족으로부터 이어진 대물림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상담사들은 이러한 진술이 폭력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자신을 피해자로만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될 위험도 함께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대물림의 고리를 설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고리 앞에서 가해자가 어떤 위치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일이었다. 참여자들에게 ‘대물림을 끊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물려받은 폭력의 언어와 행동을 더 이상 다음 세대로 전달하지 않겠다는 책임의 결단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교정상담이 과거의 상처를 해석하는 작업인 동시에, 그 상처를 반복의 근거가 아니라 중단의 책임

으로 전환시키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과거에 정서적으로든 행동으로든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경우가 되게 많아서, 피해자가 아니었던 경우가 몇 명 없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E)

“행동과 정서가 대물림돼요. 가해자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해서 자기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그럼 바로 가족 세우기 들어가요. (중략) ‘부모님의 운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일어났던 모든 일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려섭니다’가 가족을 세우는 주문이에요. 그래야 대물림이 끝나요.”(참여자 F)

교정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상담사의 태도와 역량

#### 상담의 기본 연료, 인내심

모든 참여자가 상담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로 인내심을 꼽았다. 그들이 말한 인내심은 단순히 오래 참는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저항과 재발, 기대와 좌절의 순환 속에서도 상담의 의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실천적 힘이였다. 인내심은 상담을 지속하게 하는 ‘기본 연료’였으며, 상담사 자신의 무력감과 회의를 수퍼비전과 성찰을 통해 견뎌내게 하는 내적 태도였다. 즉, 교정상담에서 인내심은 부수적 덕목이 아니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집단 상담 몇 번 참여한다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 편에서 저한테 항의하거나 폭력이 재발되면 좌절감이 들고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럴 땐 수퍼비전 같은 거 받으면서 견뎌요.”(참여자 B)

#### 동반자적 자세: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가정폭력이 분명한 범죄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가해자를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나 일방적인 타자로 위치시키는 태도는 상담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들은 가해자와 함께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구도를 내려놓고, 상담자 자신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자각 속에서 가해자를 만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반자적 자세는 폭력행위를 용인하거나 경계를 흐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붙드는 태도였다.

“범죄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래 당신과 나는 같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 ‘당신도 나도 함께 성장한다.’나한테도 있는 거를, 나는 덜 할 뿐이고 그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갖고 있는데 더 드러냈을 뿐이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참여자 C)

#### 저항을 방어가 아닌 메시지로 수용하기

참여자들은 가해자의 저항을 교정상담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저항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저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가였다. 참여자들은 가해자의

반항, 냉소, 회피, 무관심을 단순히 상담 비협조로 해석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두려움, 수치심, 불신, 통제욕구, 혹은 자기보호의 메시지를 읽어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험은 교정상담이 저항을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라, 저항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내면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그 사람의 범죄행위를 생각하면 공감이 안 돼요. 목사가 되어 회개하고 반성하라거나 도덕 선생이 되어도 안 돼요. 저항 속에 담긴 메시지에 주목해야 해요.”(참여자 D)

“상담환경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요, 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죠. 간식이나 상담자리 배치 같은 것도 그렇고,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안정감을 느끼면서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저항이 줄어요. 저항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참여자 C)

####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만이 살길

참여자들은 가정폭력 교정상담이 단순한 일반 상담기술만으로 감당될 수 없는 고난도의 실천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폭력의 역동, 저항, 관계의 왜곡, 법적 맥락, 재발 위험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사의 전문성 차이는 상담의 방향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험되었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교정상담을 교정상담답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100시간 교육 수료증만 받으면 누구나 교정상담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상담은 그 정도 전문성만으로는 턱도 없거든요. 그게 문제죠. 상담사 개인이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고용도 불안정하고 급여도 적은 게 현실이니 전문성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성평등가족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수준에서만 상담사가 기능하게 되기 쉽죠.”(참여자 D)

### 환상같은 사명감, 그러나 버려야 할 구원 환상

모든 참여자는 교정상담 업무에 대해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단 한 건의 재범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감각은 많은 참여자들이 피해자 지원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과도 맞물려 있었다.

사명감은 구원환상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자신이 신처럼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교정상담이 타인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 전체를 자기 책임으로 떠안지 않는 성찰적 태도를 요구하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크게 저항하고 막 이러다가 점점 태도가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피해자도 긍정적인 변화에 감동하고 이러면 보람이 굉장히 크죠.”(참여자 E)

“어쩌면 상담자로서 한계 있잖아요. 그게 저를 괴롭히는데, 괴로운 마음속을 들여다 보니 제가 신이 되려고 했더라고요.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가끔 이렇게 올라와요.”(참여자 A)

### 개인을 넘어선 관계적 맥락

#### 환경을 살펴야 보이는 답

참여자들에게 폭력은 개인 내부의 충동만으로 설명되는 현상이 아니라, 일상의 구조와 관계적 맥락 속에서 반복적으로 촉발되는 행위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환경을 본다는 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다시 발생하는 조건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교정상담이 개인의 변화 의지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생활세계의 변화와 병행될 때 비로소 실질적 효과를 갖게 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일상이 바뀌지 않는 거죠. 우선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 문제행동이 재발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환경 변화 없이 가해자의 의지만으로 바뀌길 기대하기가 어려워요.”(참여자 A)

#### 가족 전체가 개입 단위

참여자들은 부부상담이나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병행할 때 가해자의 변화가 보다 실제적인 힘을 얻는 경우를 경험하고 있었다. 가족이 폭력을 강화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행동을 지지하고 유지하게 하는 자원이 될 수도 있었다. 다만, 갈등의 끝이

너무 깊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는 가족 유지 자체를 목표로 삼는 접근이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고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인식도 강했다. 이들에게 가족은 무조건 지켜야 할 단위가 아니라, 현재의 건강성과 상처 수준을 면밀히 살펴가며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관계적 장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본인이 상담 시간에 새롭게 배운 걸 집에 가서 해보니 가족이 다른 반응을 보였어.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죠. 이럴 땐 가족을 같이 상담하면서 ‘달라진 행동’에 대한 달라진 반응을 해주도록 돕는 것이 힘이 돼요”(참여자 A)

“갈등의 골이 이미 깊어졌을 때는 가족 전체가 상처입은 상태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정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지만, 건강한 구석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럴 땐 가정을 지키라고 하기 힘들어요. 각자 좀 더 건강하게 살 길을 찾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참여자 C)

#### 현재 폭력의 암호를 푸는 해독제, 원가족

모든 참여자가 폭력의 대물림이 있는 사례에서 원가족 문제를 다루는 일이 교정상담의 중요한 축이 된다고 보았다. 원가족 경험이 현재 폭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가해자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경험은 가해자에게 큰 충격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에게 가해자의 원가족은 현재 폭력의 의미를 해독하게 하는 핵심 열쇠였다. 이는 교정상담이 현재의 폭력을 억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폭력의 세대 간 반복을 끊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해석하는 작업임을 보여준다.

“대부분 혼나러 오는 사람처럼 하고 와요. 하지만 그간 겪었던 것들을 차분히 들어주고 무엇 때문에 폭력에 이르렀는지를 정리해주면 어느 순간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샌가 자기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고 그 공간에서 듣고 오가는 언어가 비슷하니까. 대물림인 거죠. (중략) 멈춰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지 모르니 힘이 들죠. 이때 원가족을 충분히 다루고 그들과 분리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해요.”(참여자 F)

#### 실천 경험이 드러내는 제도적 긴장

##### 수요자 중심의 입체적 개입

참여자들은 현재의 상담위탁 제도가 사건의 심각도, 가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상담이 실제로 필요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적절히 구분되지 못하고, 정신과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사람조차 상담기관으로 의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상담 기간이나 방식이 실질적 필요보다 행정적 틀에 의해 결정되면서, 지나치게 짧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긴 개입이 이루어지는 부작용도 보고되었다.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현재의 제도가 상담의 실제 수요보다 제도 운영의 편의에 더 가깝게 설계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는 교정상담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

해 사례별 위험도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입체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구조로 재편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폭력의 유형이나 재범 가능성이 사건마다 다르고 가해자마다도 다르니 차별화된 상담이 필요한데, 판사님이 서류만 보고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신과 병원에 가서야할 조현병 환자도 저희한테 상담이 의뢰돼요. 저희는 의뢰되면 일단 상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어쩔 수 없죠.”(참여자 A)

“심하면 4개월이고 대부분 2개월로 보내요. 저는 실은 2개월이 좋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기 상담은 불만이 많아요. 가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불만을 토로해요. 왜 자꾸 부르냐고. 법원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우리를 찾아오면 온갖 불만을 토로하고 트집을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6개월보다는 2~3개월이 낫죠. 짧고 짧게.”(참여자 E)

#### 가정폭력 발생 맥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개입체계 구축

대부분의 참여자는 최근의 가정폭력이 과거의 전형적인 가부장적 통제 양상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무 현장에서는 정서적 결핍, 경제적 부담, 사회적 스트레스, 양육과 가사 분담 갈등, 쌍방폭력, 세대 간 폭력 등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양상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신고 역시 폭력이 극단으로 치달은 이후가 아니라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

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상담 프로그램과 실천 패러다임은 여전히 과거의 전형적 가해자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변화된 현실과 부딪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간극은 상담사가 내담자의 실제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정해진 틀을 적용하게 만들고, 결국 라포 형성과 상담 효과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경험되고 있었다. 이는 변화한 가정폭력의 발생 맥락을 반영하는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접근 위에서 구축된 새로운 개입 패러다임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해진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나 신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중략) 하지만 가정폭력 발생 맥락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허위 가 아니라 진짜로 쌍방 폭행인 사례도 많아지고. 그런데도 상담사는 이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당신의 생각이 왜곡돼 있으니까 인식을 바꿔야 된다,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해자와 라포가 잘 형성되지 않고 대립이 생기게 돼요.”(참여자 D)

“맞살림, 맞양육과 같은 문제로 싸우다가 가정폭력이 발생해서 의뢰되는 사례도 많아요. (중략) 비교적 경미한 부부싸움으로 의뢰되는 경우는 상담의 효과가 있는데 폭력 수준이 극심하거나 이미 확고한 이혼 의사를 가진 경우에는 글썩요...”(참여자 C)

“과거에는 폭력강도가 심할 때 발견돼서 저희에게 의뢰가 되었는데, 이제는 초

기 단계에서 신고가 이뤄지고 상담 위탁이 내려져요. 전반적으로는 가정폭력 수준이 경미해진 거죠.”(참여자 A)

#### 사법-치료 통합 모델 정립이라는 상상

모든 참여자는 교정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현장의 경험이 정책과 사법적 판단에 환류되고, 반대로 사법기관과의 협력이 상담 실천을 지지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법원이나 보호관찰 실무자와 원활하게 소통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특성과 상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개입이 가능해지고, 그러한 경험은 상담사들에게도 일의 의미와 효과를 더 분명하게 체감하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금과 같이 사법과 치료가 분절된 구조에서는,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의료적 개입이 우선인 사람이 상담으로 오거나, 상담 현장의 판단과 경험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답답함이 지속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사법-치료 통합 모델은 단순한 협력 체계의 구축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하나의 복합적 현실로 보고 처벌과 치료, 통제와 지원이 분리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적 상상력이었다.

“판사님이 가정폭력을 했으니 당연히 상담받아야지 하는 생각에서 무조건 상담 위탁처분을 내리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관계자에게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으니 답답할 수밖에요.”(참여자 D)

“보호관찰소나 법원 실무자들이 협조를

잘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차이가 아주 커요. 협조가 잘 되면 한 사람 살려보겠다는 심정으로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신나게 일하게 되고, 결과도 아주 만족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널리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참여자 E)

#### 상담 체계 및 내용의 체질 개선: 전문화, 특화, 그리고 예산 확보

참여자들의 경험은 현재의 교정상담 체계가 상담사 개인의 헌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상담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상담이 교육이나 훈계 중심으로 흐르기 쉽고, 표준화된 전문가 양성 체계의 부재는 상담의 질을 고르게 담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차별성 없는 프로그램 구성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은 상담이 사례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되기보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집합교육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전문화, 특화, 예산 확보는 각각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 문제로 경험되고 있었다. 충분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안정된 인력 위에서만 사례 특성과 위험 수준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이 가능하며, 이러한 구조가 마련될 때 비로소 교정상담이 예방과 재범 억제라는 본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었다. 결국 현재의 교정상담은 제도적 기반 없이 개인의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에 가깝고,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근무하시는 상담사분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일부 있어요. 그런 경우 상담사가 대체로 교육에 초점 맞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정상담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려면 상담 인력 먼저 제대로 양성해야 해요. 그에 맞게 처우도 개선되어야겠죠. 지금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헌신에 기대서 간당간당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대론 오래 못 버텨요.”(참여자 D)

“돈 안 받고 싶어요. 그게 더 편해요. 최저 시급 준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돈 받으면 내가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이며 개인 상담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무료 상담이 편해요.”(참여자 E)

## 논 의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이 재범 억제라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나아가 제도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정상담사 6인을 심층면담한 후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법을 적용하여 녹취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2개의 세부주제가 도출되었고, 이것이 5개 본질적 주제로 수렴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상담사가 경험한 가해자들의 본질적 특성은 ‘변화 의지와 자기합리화가 교차하는 가해자의 태도’였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사회화된 정도가 변화의 동기가 높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권력과 통제 중심의 세계관을

토대로 한 폭력의 자기합리화를 해체하는 것이 재범억제를 위한 필수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진숙, 정세종, 한미경, 2016; 양혜경, 유혜선, 서보람, 2015)와 일관된 것으로, 교정상담 과정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책임 강화를 포함한 인지적 변화에 초점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에 부합하게 최희순과 한민경(2025)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효과검증 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감정적 죄책감을 자극함으로써 가해자의 자기연민을 강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인지적 공감과 책임인식 강화에 초점맞출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가해자의 중독문제가 교정상담 개입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참여자들이 주목한 것은 중독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아니라 재범 위험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촉진요인이라는 점, 즉 중독이 폭력의 원인이 아닌 핑계일 뿐이며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한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폭력을 허용하는 인지구조를 가진 사람에게 술이나 마약같은 물질이 폭력을 행사할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Roman-Lazarte, Moncada-Mapelli, Galeas-Torr et al., 2024)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독이 가정폭력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시 중독문제를 다루되 그것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아닌 재범 촉발요인임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초점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해자의 환경 탓이 그저 책임회피만을 위

한 기만 전략이 아님을 수용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선택하는 것이 심리적 이득 외 실익이 없음을 인식시키는 전략, 그리고 폭력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 ‘선택’임을 분명하게 하는 상담 전략이 변화의 동기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이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갈등 해결 레퍼토리를 학습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가 가정폭력의 간접적인 심화요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같은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폭력을 선택하지만 누군가는 비폭력적인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심혜인, 하상군, 2024). 폭력이 단순히 환경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인지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요인인 만큼(Capddi, 2012) 상담 실무에서는 환경과 개인 요인 모두를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변화에 대한 가해자의 동기가 상담 효과와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에 대한 동기는 비단 교정상담만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상담에서 핵심 효과요인이다. 문제는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에서는 변화 동기를 유지시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동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간단히 말해 개인의 의지에 맡기면 무너지고 구조에 묶으면 유지된다는 주장으로, 이는 지속적인 사법모니터링이 교정상담개입의 효과를 유지시켜주고 재범 억제에도 효과적이었다는 Labriola(2005)의 연구 결과나 교정상담과 재범방지를 위한 사법적 감독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김잔디(2023)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상담내용 측면의 본질은 ‘변화 가능성

을 믿는 상담실천’이었다. 여기에는 치료적 동맹의 공고화, 손실회피 전략의 학습, ‘사고’에서 ‘범죄’로의 언어적 전환, 변화에 대한 희망 고취, 그리고 폭력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용기와 책임감의 강화라는 세부주제가 포함되었다. 모든 참여자가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를 단순한 공감 관계가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한 협력적 계약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변화 의지를 현실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손실회피 전략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폭력이 음주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사고’라는 인식이 가해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만큼, 폭력 행위를 범죄의 맥락에서 재정의하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접근이 상담내용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도출되었다.

다만 이러한 인지적 전환은 도덕적 비난이나 훈계가 아닌 체계적인 인지 훈련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시하거나 가르치는 태도보다는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하는 자세’가 치료적 동맹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변화에 대한 희망을 고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 주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의 내용이 설득이나 달래기 혹은 훈육이 아니라 책임과 동기 및 정체성을 동시에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여러 연구와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들은 변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둔 결과 가정폭력을 ‘범죄적 선택’이 아닌 사고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책임 기반의 치료적 동맹보다는 일방적인 교육과 행동 기술 훈련에 집중하면서 자아

존중감, 분노 감소 같은 심리적 변수를 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유진희, 김민경, 2019; 최연화, 2022). 본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신 안정과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범 억제라는 맥락에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장희숙(2018)이 부부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결과 교정상담 프로그램이 가해자의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으나 재발 감소에 대한 효과는 일관되지 않다고 결론내린 것은 이러한 결론을 지지한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을 가해자를 돌보고 달래어 재범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닌 ‘범죄적 관점’에서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고 인지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교정상담의 효과를 촉진하는 상담사 요인의 본질은 ‘교정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상담사의 태도와 역량’이었다. 인내심, 동반자적 자세, 저항수용,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사명감은 가지되 구원환상에 함몰되지 않는 자세가 도출되었다. 다른 상담과 달리 교정상담은 상담효과를 재범이라는 현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재범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사들에게 적잖은 좌절감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는 바탕이 되는 상담사의 기본 역량은 인내심-가해자의 행위를 참아주는 것(즉, 봐주는 것)이 아닌 ‘변화의 순간을 믿으며 견뎌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인내심 있는

상담사는 가해자의 변화 거부나 재범에 직면해도 동반자적 자세로 저항을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보람을 찾되 구원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었다.

한편, 다수의 참여자가 상담사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선택이 아닌 의무이나 실제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상담사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로(Stover & Lent, 2014)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무부 주도로 양성되고 있는 진술조력인과 같이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의 교정상담사 양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교정상담의 효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요인의 본질은 ‘개인을 넘어선 관계적 맥락’이었다. 환경요인이 가정폭력을 정당화해 줄 수 없기는 하나, 교정상담 시 환경요인을 다루는 것이 재범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가족을 개입단위로 할 필요가 있으며, 원가족과의 관계를 다루는 작업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필수 요소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Dixon, Browne과 Hamilton-Giachritsis(2009)은 폭력의 대물림을 끊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원가족 및 가족환경 차원의 보호요인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 개입에서 원가족 관계 맥락을 다루는 작업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영역의 본질은 ‘실천 경험이 드러내는 제도적 긴장’이었다. 모든 참여자가 재범 억제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입체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기존의 ‘매뉴얼에 기반한

기계적 교정상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가정폭력 발생 맥락이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가정폭력실태조사 및 통계(지표누리, 2026)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전통적인 신체적 폭력 중심의 개념에서 정서적·심리적 폭력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유형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Kim, Kim, Lee, Park, 그리고 Kim(2022)이 2011~2019년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를 활용하여 친밀한 관계 폭력 경험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이 더 이상 일방적 가해·피해 구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참여자들이 보고한 가정폭력 발생 맥락의 변화는 경험적 인식에 그치지 않고 실증적 자료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된 가정폭력의 발생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여, 폭력 유형과 관계 특성에 따른 하위 유형별 맞춤형 개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비록 그 수는 제한적이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주요 의뢰 기관인 형사사법기관이 단순한 의뢰 주체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는 궁극적으로 실무자의 운영을 통해 구현된다. 따라서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열악한 재정 지원으로 인해 교정상담 지원이 개별 상담사나 관련 단체의 헌신에 의존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교정상담 예산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확보 역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본 연구는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활동 중인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 역시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지역과 소속 기관 및 행위자들의 의뢰 경로에 따라 업무환경과 상담전략 등에 편차가 크다고 보고한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고, 보다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정상담사들을 포함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상담사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의 재범 억제 효과 제고 및 제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최초의 기초 자료 탐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체계를 발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제 교정상담 실무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가치 또한 크다.

## 참고문헌

- 강은희, 이현림 (2008).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이 가해자의 폭력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85-102.
- 경찰청 (2024). 경찰청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 현황. 전자정부누리집.  
<https://www.data.go.kr> (2026년 1월 30일 검색)
- 경찰청 (2024). 시도청별 가정폭력 신고건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
- 김민정 (2022). 가정폭력 행위자를 상담하는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의 상담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 김원자 (2010).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수강명령 대상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 김잔디 (2023).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5(3), 349-376.
- 김정순 (2025). 가정폭력 행위자를 상담하는 상담사들의 상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D시 가폭 상담사 중심으로. 상담심리교육복지, 12(6), 207-230.
- 김진숙, 정세중, 한민경 (2016). 수강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폭력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公安행정학회보, 25(3), 251-282.
- 김현미 (2023).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심혜인, 하상군 (2024).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20(4), 143-160.
- 양혜경, 유해선, 서보람 (2015).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부부갈등, 폭력, 분노, 의사소통, 자아인식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68, 39-66.
- 오승이 (2024). “우리 가족 좀 내버려줘요.”에 대처하는 판사의 자세: 법원의 가정보호사 건처리 실무와 개선방향. 젠더법학, 16(2), 157-216.
- 유지웅 (2017).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현장대응 실효성 제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 유진희, 김민경 (2019). 가정폭력가해자의 교정·상담프로그램이 분노표현과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3), 19-37.
- 윤영혜 (2021). 가정폭력범죄 사례 분석을 통한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선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장희숙 (2005). 폭력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여성주의 집단상담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6, 161-186.
- 장희숙 (2018). 부부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4), 593-620.
- 조현각, 장희숙 (2011). 상담을 통한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정: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 비교. 교정담론, 5(1), 217-238.
- 최연화 (2022). 가정폭력 가해자의 자기분화가 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분노조절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2), 1-26.
- 최응용, 김의명, 오정영 (2008). 현실치료-인지행동 집단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의사소통양식, 갈등해결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3(3), 223-239.
- 최희순, 한민경 (2025). 국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연구동향 탐색: 효과

- 성 평가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호관찰*, 25(1), 121-156.
- Capaldi, D. M., Kim, H. K., & Shortt, J. W. (2012). A systematic review of risk facto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1), 570-595.
- Dixon, L., Browne, K., & Hamilton-Giachritsis, C. (2009). Pattern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intergenerational cycle of maltreatment.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2), 111-122.
- Gadamer, H.-G. (2004). *Truth and method* (2nd rev. ed.). Continuum.
- Heidegger, M. (1962). *Being and time*. Harper & Row.
- Kim, R., Yoon, J., Kim, J. H., Lee, H., Park, J., & Kim, S. S. (2022). Association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uicidal ideation among female and male adults in South Korea: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23-24), NP23222-NP23240.
- Labriola, M. (2005). *Testing the impact of court monitoring and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at the Bronx misdemeanor domestic violence court* (Research design report). Center for Court Innovation.
- Norcross, J. C., & Lambert, M. J. (2018). Psychotherapy relationships that work III. *Psychotherapy*, 55(4), 303-315.
- Polit, D. F., & Beck, C. T. (2010). *Essentials of nursing research: Appraising evidence for nursing practice* (7th e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Roman-Lazarte, V. Sr., Moncada-Mapelli, E., Galeas-Torre, M. K., Roman, L. A., & Marcelo-Armas, M. L. (2024). Substance use and recidivism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Peru: A cross-sectional study. *Health Psychology Research*, 12, Article 93976.
- Stover, C. S., & Lent, K. (2014). Training and certification for domestic violence service providers: The need for a national standard curriculum and training approach. *Psychology of Violence*, 4(2), 117-127.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차원고접수 : 2026. 02. 06.

심사통과접수 : 2026. 03. 24.

최종원고접수 : 2026. 03. 30.

##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Experiences of Correctional Counselors for Hermeneutic Phenomenology Study

Se Hyun LEE      Tae Kyoung KIM

Graduate school, Seowo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key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and to explore directions for improving related institutional framework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intervention counselor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A total of 22 subordinate themes were derived and organized into five overarching themes. Perpetrators' attitudes reflected a dynamic interplay between motivation for change and self-justification, including power-oriented beliefs, addiction issues, and externalization of responsibility. Effective counseling practices involved establishing therapeutic alliances, fostering hope, promoting behavioral and linguistic change, and interrupting intergenerational patterns of violence. Counselors' competencies included patience, a collaborative stance, acceptance of resistance, and relinquishing "savior" expectations. A relational perspective emphasized the family as a unit of intervention. Institutional tensions highlighted the need for client-centered, multi-layered approaches, improvements in program quality, adaptation to evolving contexts of violence, and integration of judicial and therapeutic system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 corrective counseling, hermeneutic phenomenology